

<http://dx.doi.org/10.17703/JCCT.2022.8.1.51>

JCCT 2022-1-6

부모와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이 남녀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Intimacy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Resilience

이종화*, 문영희**

Lee Jong Hwa*, Mun Young Hee**

요약 본 연구는 중학생이 인지하는 부모와의 친밀감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것이다. 서울과 전라북도에서 편의 추출된 중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남자 중학생 134명, 여자 중학생 142명의 자료로 부모와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남자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고,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친밀감이 여자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남·여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중학생과 아버지와의 개방적이고 긍정적 의사소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남자 중학생과 아버지와의 친밀감, 여자 중학생과 어머니와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주요어 : 부모와의 친밀감, 부모와의 의사소통, 회복탄력성, 중학생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 parent-adolescent intimacy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the resilience in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by 276 middle school students using a self-questionnaire. With SPSS 21.0, frequencies, percentages, mean, standard deviation, independent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ze the data. Communication with father and intimacy with father were identified as factors influencing the resilience of 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communication with father and intimacy with mother were identified as factors influencing the resilience of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Communication with fathers has been identified as a factor influencing the resilience of middle school boys and girls, so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educational programs for positive communicati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and fath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apply an intervention program to improve intimacy between 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fathers and intimacy betwee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mothers.

Key words : Parent-Adolescent Intimac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Resilience, Middle School Students

*정희원, 군산간호대학교 부교수 (제1저자, 교신저자)
**정희원, 군산간호대학교 부교수 (참여저자)
접수일: 2021년 12월 3일, 수정완료일: 2021년 12월 13일
게재확정일: 2021년 12월 20일

Received: December 3, 2021 / Revised: December 13, 2021
Accepted: December 20, 2021
*Corresponding Author: 1108ljh@naver.com
Kunsan College of Nursing

1. 서론

아동에서 성인으로 옮겨가는 전환기인 청소년기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시기이다. 초기전환기에 해당하는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들은 신체적, 사회심리적인 측면에서 사춘기의 특징들이 급속하고 뚜렷하게 발현되며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여러 가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는 중학생들은 급격한 변화만큼이나 새롭고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며, 신체 및 성적 성숙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정서적 불안,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독립 추구하고 그로 인한 갈등, 학업 및 친구들과의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다[1, 2]. 중학생 시기에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면 부적응과 다양한 정서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될 수 있다[3, 4].

스트레스나 문제 발생 상황에서 우울, 비행, 부적응 등의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지 않게 하고, 완충적인 작용을 하도록 하며, 역경의 상황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은 안녕감이나 정서적인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위협이나 역경을 극복하고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여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6, 7]. 다양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이나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회복탄력성은 중학생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충격이나 압박 상황에서 다시 일어서는 힘이 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그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용하는 능력이라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심리적인 변인이다[8, 9, 10, 11].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서 좌절하지 않고 상황을 잘 극복하며 기존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환경에 적응하고 심리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이 회복탄력성이다[12]. 회복탄력성이 높은 청소년들은 어려운 상황에 노출된 경우에도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가 적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태도가 긍정적이며,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는 능력이 있고, 대인관계가 원만한 것을 볼 수 있다. 높은 회복탄력성은 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성이나 능력이 아니라 역경을 이기고 성장해

나가는 일반적인 적응기제로, 개인적으로 타고난 특질이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으로 학습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다[12, 13, 14]. 높은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잘 해결하고 사고방식이 유연하며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으로 주관적 안녕감이 높고 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다[12, 15].

따라서 회복탄력성은 청소년들이 내적인 힘을 갖춰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안정감을 갖는데 도움이 되므로 교육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12, 13].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는 내면의 자원인 회복탄력성은 가정적 요인, 사회적 요인, 교육적 요인, 문화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가족은 청소년 회복탄력성의 핵심 요소가 될 수 있다[5, 15]. 가족 중에서도 부모 관련 변인은 청소년기 회복탄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아버지와 자녀, 어머니와 자녀의 관계는 최초로 경험하는 인간관계로 사회·심리적 발달의 시작이 된다. 온화하고 지지적인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며, 자녀들의 강점이 되는 특성들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려하므로 개개인의 회복탄력성 개발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지해주는 공감적 정서 반응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심리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상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된다. 부모 공감이 자녀들의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긍정적이고 온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를 가진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0, 16, 17].

부모 관련 변인 중 본 연구에서는 부모와 중학생 자녀와의 정서적 교류를 알 수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감과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의견과 정보를 나누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소통과정인 부모와 자녀 간의 의사소통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들이 부모와의 친밀감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을 나누어 각각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성별 특성에 맞는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부모와의 친밀감과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남녀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윤리적 고려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서울과 전라북도 지역의 편의 추출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학교 담당자에게 연구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허락을 받은 후 연구자 또는 연구보조원이 교사와 학생들에게 연구에 대한 사항과 공익성, 익명성, 개인 비밀보장, 그리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와 중도에 언제라도 연구 참여를 중단할 권리를 구두와 서면으로 알려주었다. 참여 의사를 밝힌 학생들에게 동의서를 받은 후 무기명, 자가 보고식 설문지를 이용하여 30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누락된 항목 없이 응답한 남학생 134명, 여학생 142명 모두 276명의 설문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G*power 3.1.9.4 program을 사용하여 회귀 분석 시 유의수준(α)= .05, 효과크기(effect size)는 중간인 .15, 검정력($1-\beta$)= .95, 예측변수(number of predictors) 4개로 하였을 경우 최소 표본 대상자 수는 129명이었고,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최소 표본수를 충족하였다.

3. 연구도구

1) 부모와의 친밀감

부모와의 친밀감은 이장주, 최상진(2003)[18]의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아버지와의 친밀감 20문항, 어머니와의 친밀감 2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밀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아버지와의 친밀감 .81, 어머니와의 친밀감 .83이었다.

2)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사용된 도구는 Barnes와 Olson (1985)의 도구를 김수연(1998)[19]이 번역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20문항,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20문항으로 구성되었고,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78,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77이었다.

3) 회복탄력성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신우열, 김민규, 김주환(2009)[13]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2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는 .79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일원 배치 분산분석을 사용하였다. 둘째, 변수들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셋째, 아버지와의 친밀감, 어머니와의 친밀감,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남녀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특성과 회복탄력성

본 연구대상자는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표 1)과 같다.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 모두 학년, 학교성적, 가정경제상태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나타났다(표 1).

2. 부모와의 친밀감, 부모와의 의사소통, 회복탄력성의 정도 및 상관관계

본 연구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남자 중학생 3.35 ± 0.58 , 여자 중학생 3.40 ± 0.68 이었고,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 = -0.69$, $p = .489$)(표 2).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의 아버지와의 친밀감, 어머니와의 친밀감,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정도는 (표 2)와 같고, 남녀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회복탄력성은 남자 중학생에서 아버지와의 친밀감($r = .47$, $p < .001$),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Intimacy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Resilience

표 1. 일반적 사항과 회복탄력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silience

(N=276)

Variables		Male Student (n=134)			Female Student (n=142)		
		n (%)	Resilience		n (%)	Resilience	
			Mean (SD)	F(p)		Mean (SD)	F(p)
Grade	1st	43 (32.1)	3.30 (±0.52)	1.67 (.193)	47 (33.1)	3.51 (±0.65)	2.22 (.113)
	2nd	52 (38.8)	3.46 (±0.63)		48 (33.8)	3.15 (±0.76)	
	3rd	39 (29.1)	3.25 (±0.57)		47 (33.1)	3.55 (±0.61)	
School record	High	20 (14.9)	3.48 (±0.74)	1.33 (.269)	21 (14.8)	3.47 (±0.65)	2.46 (.089)
	Moderate	78 (58.2)	3.37 (±0.56)		77 (54.2)	3.49 (±0.63)	
	Low	36 (26.9)	3.23 (±0.52)		44 (31.0)	3.22 (±0.76)	
Economic status	High	31 (23.1)	3.38 (±0.58)	1.34 (.265)	27 (19.0)	3.51 (±0.89)	1.18 (.311)
	Moderate	84 (62.7)	3.38 (±0.57)		88 (62.0)	3.42 (±0.64)	
	Low	19 (14.2)	3.15 (±0.63)		27 (19.0)	3.24 (±0.55)	

표 2. 변수들의 정도 및 남녀차이

Table 2. Mean scores of variables and difference by male and female student

(N=276)

Variables	Male Student (n=134)			Female Student (n=142)			t(p)
	Max	Min	Mean (SD)	최소값	최대값	Mean (SD)	
Resilience	1.80	5.00	3.35 (±0.58)	1.40	4.90	3.40 (±0.68)	-0.69 (.489)
Father-adolescent intimacy	1.00	5.00	3.70 (±0.83)	1.00	5.00	3.78 (±0.93)	-0.76 (.447)
Mother-adolescent intimacy	1.00	5.00	3.83 (±0.83)	1.00	5.00	3.98 (±0.82)	-1.52 (.129)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1.45	4.20	3.00 (±0.46)	1.40	4.30	2.88 (±0.61)	1.82 (.071)
Mother-adolescent communication	1.40	4.20	3.02 (±0.46)	1.60	4.65	3.04 (±0.60)	-0.44 (.658)

M=Mean; SD=Standard deviation

표 3. 변수들의 상관관계

Table 3. Correlation among parent-adolescent intimac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resilience

(N=276)

	Male Student (n=134)				Female Student (n=142)				
	Resilience	Father adolescent intimacy	Mother adolescent intimacy	Father adolescent communication	Resilience	Father adolescent intimacy	Mother adolescent intimacy	Father adolescent communication	Father adolescent communication
Resilience	1				1				
Father adolescent intimacy	.47 (p<.001)	1			.46 (p<.001)	1			
Mother adolescent intimacy	.39 (p<.001)	.77 (p<.001)	1		.55 (p<.001)	.74 (p<.001)	1		
Father adolescent communication	.48 (p<.001)	.46 (p<.001)	.34 (p<.001)	1	.56 (p<.001)	.65 (p<.001)	.54 (p<.001)	1	
Mother adolescent communication	.39 (p<.001)	.41 (p<.001)	.37 (p<.001)	.75 (p<.001)	1	.47 (p<.001)	.41 (p<.001)	.65 (p<.001)	.67 (p<.001)

어머니와의 친밀감($r=.39, p<.001$), 아버지와의 의사소통($r=.48, p<.001$), 어머니와의 의사소통($r=.39,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고, 여자 중학생의 경우에서도 아버지와의 친밀감($r=.46, p<.001$), 어머니와의 친밀감

($r=.55, p<.001$), 아버지와의 의사소통($r=.56, p<.001$), 어머니와의 의사소통($r=.47, p<.001$)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3. 부모와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이 남녀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이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8 미만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한 결과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Durbin-Watson을 이용하여 오차의 자기상관을 검증한 결과 검증 값은 남자 중학생 1.72, 여자 중학생 1.87로 2에 가까운 값을 보여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수에 대한 공차한계는 남학생 1.79, 여학생 0.71로 0.1 이상이었고, VIF값은 남학생 1.27, 여학생 1.41로 10보다 작아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 모두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영향력 분석을 Cook's D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1.0 이상인 개체는 없었다. 잔차 분석결과 선형성이 확인되었고, 산점도는 잔차의 분포가 0을 중심으로 고르게 퍼져 있어 오차항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이 확인되었다. 회귀모형을 분석한 결과 회귀모형은 남자 중학생($F=29.70, p<.001$), 여자 중학생($F=45.79, p<.001$)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아버지와의 의사소통($\beta=.34, p<.001$)과 아버지와의 친밀감

($\beta=.32, p<.001$)이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확인되었고, 이 변인들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설명력은 30%로 나타났다(표4). 여자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어머니와의 의사소통($\beta=.37, p<.001$)과 어머니와의 친밀감($\beta=.35, p<.001$)이 양의 영향력을 가지는 변수로 확인되었고, 이 변인들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설명력은 39%로 나타났다(표5).

IV. 논 의

본 연구는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부모와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중학생의 성별 특성에 맞는 회복탄력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남자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은 3.35, 여자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은 3.40 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애란(2018)[20]과 김세은, 김사라형선(2016)[21] 그리고 양형모(2016)[22]의 연구에서도 남녀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회복탄력성은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 모두 중간값(3.0) 이상이었는데,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한 윤애란(2018)[20],

표 4. 남자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4. Effects of parent-adolescent intimacy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male Middle school student's resilience (N=134)

Variables	B	S.E	β	t	p	Adj. R ²	F(p)
Constant	1.24	0.29		4.31	<.001	.30	29.70 (<.001)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0.43	0.10	.34	4.13	<.001		
Father-adolescent intimacy	0.22	0.06	.32	3.89	<.001		
Tolerance=0.79, Variance Inflation Factor(VIF)=1.27, Durbin-Watson=1.72							

표 5. 여자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Effects of parent-adolescent intimacy and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resilience (N=142)

Variables	B	S.E	β	t	p	Adj. R ²	F(p)
Constant	1.06	0.25		4.27	<.001	.39	45.76 (<.001)
Father-adolescent communication	0.41	0.09	.37	4.73	<.001		
Mother-adolescent intimacy	0.29	0.07	.35	4.47	<.001		
Tolerance=0.71, Variance Inflation Factor(VIF)=1.41, Durbin-Watson=1.87							

김세은과 김사라형선(2016)[21], 이선정(2019)[14]의 연구에서도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중간값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이선정(2019)[14]은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중간값보다 높은 수준이어도,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중학생들이 정서적 불안이나 심한 스트레스 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회복탄력성은 학습 가능하고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나 교육을 통하여 성장시킬 수 있는 개인이 내면에 가지고 있는 힘이므로[12, 23],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자 중학생은 학년, 학교 성적, 가정의 경제 상태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가 없었고, 여자 중학생도 학년, 학교 성적, 가정의 경제 상태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인 남녀 중학생 모두 학년, 학교 성적, 가정의 경제 상태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형모(2016)[22]의 연구에서도 학년과 부모의 소득 수준에 따른 전반적인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없었고, 이소민(2019)[5]의 연구에서도 학업 성취 수준에 따른 회복탄력성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아버지와의 친밀감, 어머니와의 친밀감,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모두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의 차이가 없었는데,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세은과 김사라형선(2016)[21]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에 남녀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해주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윤주(2009)[2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와의 친밀감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은 남녀학생들 사이의 차이가 없었으나, 아버지와의 친밀감과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의 차이가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연구대상의 차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학생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 연구를 제언한다.

부모와의 친밀감과 의사소통이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남자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아버지와의 친밀감, 여자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는 아버지와의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친밀감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은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 모두에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서현석(2013)[25]은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어머니의 양육 태도보다 청소년 자녀의 회복탄력성에 강하게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아버지와 의사소통이 남녀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고, 아버지의 양육 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의 결과들은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에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아버지와 청소년 자녀들과의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해 아버지가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버지가 애정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과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할 때 남자 청소년이나 여자 청소년 자녀의 회복탄력성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아버지는 가정에서 바람직한 아버지상을 갖추고 책임 있는 아버지가 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선정(2019)[14]의 주장처럼 부모·자녀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들은 아버지가 자녀의 올바른 발달과 성장을 위해 본인들의 세대와는 다른 요즘 청소년들을 이해하고, 아버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아버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남·여 중학생 모두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점수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 점수보다 높았지만, 회복탄력성에 영향 하는 것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었는데,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청소년 우울에 대한 연구를 한 정장수와 전해성(2016)[26]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과 어머니와의 대화시간이 아버지와의 대화시간보다 더 길지만, 아버지와의 대화시간이 길수록 청소년의 우울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주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시간이 아버지보다 길고, 아버지보다 어머니와 더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의 정서에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은 아버지와의 의사소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연구 결과들이다. 청소년들은 아버지와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긍정적 자아관을 형성하며, 정체감의 틀을 확립하고 사회화과정에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27]. 그러므로 학교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있는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들이 아버지와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아버지 대상 프로그램'과 '중학생 대상 프로그램' 그리고 '아버지와 남자 중학생, 아버지와 여자 중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필요하다. 자녀들의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많아서인지,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 모두 아버지와 친밀감보다 어머니와의 친밀감 정도가 높았는데, 남자 중학생은 아버지와 친밀감, 여자 중학생은 어머니와의 친밀감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동성의 부모와의 친밀감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남자 중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 여자 중학생들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해 ‘어머니와 딸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각각 개발하여 동성의 부모들과 친밀감을 증진 시킬 수 있도록 적용하는 노력을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해야 할 것이다. 정서적·신체적·인지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중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불안 등 힘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정신적인 힘, 용기, 지혜 같은 내적 자원을 제공하는 회복탄력성은 누구나 내면 깊숙하게 잠재되어 있다 [12]. 잠재하고 있는 회복탄력성을 꺼내 쓰기 위해서, 즉 회복탄력성을 키우기 위해서 청소년과 부모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기관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부모교육은 어머니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14],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모교육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대면 교육뿐만 아니라 비대면 교육도 활성화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부모와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및 부모교육을 통한 회복탄력성 촉진 프로그램 개발 시 ‘아버지와 남녀 중학생 자녀와의 긍정적이고 개방적인 의사소통’ 그리고 ‘동성 부모와의 친밀감’ 증진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편의 표집 된 중학생이 대상이었으므로 전체 중학생을 대상으로 일반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중학생들이 인지하는 부모와의 친밀감과 의사소통만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여 여러 가지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대상을 확대하여 회복탄력성의 다양한 영향요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V. 결 론

아버지와 친밀감과 어머니와의 친밀감,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이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된 본 연구에서 남자 중학생은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아버지와 친밀감, 여자 중학생은 아버지와 의사소통과 어머니와의 친밀감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중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아버지와 자녀들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과 아들과 아버지, 딸과 어머니의 친밀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Y.J. Oh, "Predictors of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problem behaviors in adolescents,"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Vol 8, No. 1, pp.89-103, 2010.
- [2] O.B. Jung, "Psychology of adolescence". Seoul : Hakjisa. 2015.
- [3] S.E. Kim, J.Y. Woo, "Variables Related to the Adolescence Problem Behavior: A Relation Structural Model." *Journal of Rehabilitation Psychology*, Vol. 24, No. 2, pp.247-261, 2017.
- [4] K. A., & Muller, J. R. "Correlates of help-seeking in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Vol. 2, No. 6, pp.705-731, 1996.
- [5] S.M. Lee,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Focusing on the influence of relationships with parents, peers, and teachers,"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2019.
- [6] H.G. Jung, H.J. Kim,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My Friends Youth Group Coaching Program for Improving Resilience,"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7, No.1, pp.184-193, 2021. <http://dx.doi.org/10.17703/JCCT.2021.7.1.184>
- [7] Masten, A. S.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es in developmen.," *American Psychologist*, Vol. 56, No. 3, pp. 227-238. 2001.
- [8] K.H. Ki, K.S. Kim, "Resilience Research Trends and Tasks : Focusing on the Concept and Scale of Resilience," *The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counseling*, Vol. 17, No. 2, pp.157 - 175, 2018. <https://www.earticle.net/Article/A326841>
- [9] S.G. Ryu, S.L. Kim, "The Moderating Effect of Kindergarten Teachers' Resilience in the Relation Between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 Burnout" *The Journal of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Vol. 6, No. 2, pp.25-34, 2020. <http://dx.doi.org/10.17703/JCCT.2020.6.2.25>
- [10]S.S. Lee, Y.S. Kim, "An Analysis of Middle School Students' Resilience on Their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uter and Information*, Vol.19, No.3, pp. 135-145. 2014.
- [11]M. Dmi, / D.S. Ryu "Resilienz." Munhaksasang. Inc. 2015.
- [12]G. Gazelle,/ H.S. Shon, "Everyday Resilience : A Practical Guide to Build Inner Strength and Weather Life's Challenges development." Hyundaijsung, Gyeongdo.2021.
- [13]W.Y. Shin, M.G. Kim, J.H. Kim,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Vol. 20, No. 4, pp.105 - 131, 2009.
- [14]S.J. Lee,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and Resilienc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l. 31, No. 2, pp. 19 - 34, 2019.
- [15]J. H. Block, A. M. Kremen,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pp. 349-361, 1996.
- [16]S.Y. Park, Y.J. Jo, "Mediating Effects of Parental behaviors-Neglect, Abusive treatment, Excessive expectation- i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Empathy and Adolescents' Covert Narcissis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8, No. 10, pp. 35-63, 2011.
- [17]C.J. Lee, Y.A. Ju, "Influence of Parental Empathy and Resilience on School Adjustment: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hild Abus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4, No. 6, pp. 121-145, 2014.
- [18]J.J. Lee, S.J. Choi, "The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Parent-Adolescent Affective Bonding Scal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17, pp.87-104. 2003.
- [19]S.Y. Kim, "Developing family function assessment scale by using FACES II,III,IV." Ph D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1998.
- [20]A.R. Yoon, "The Effects of Resilience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School Adjustment -Focus on Middle School 3rd Grade Students," *Journal of Korea Youth Counseling Association*, Vol. 3, No. 2, pp. 23-45, 2018.
- [21]S.E. Kim, S.H.S. Kim,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with Parents and the Level of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by Gender,"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 17, No. 2, pp. 239-256, 2016.
- [22]H.M. Yang,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Family Characteristics on The Resilience of Adolescents," Master's Thesis. Keiyung University, Daegu, 2016.
- [23]E.S. Hong, "Conceptual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nd instructional sugges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Vol. 41, No. 2, pp. 45-67, 2006.
- [24]Y.J. Lee,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intimacy,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family support on suicidal behavior of middle and high school's students," *Family and Culture*, Vol. 21, No.3, pp.57-71, 2009. <http://dx.doi.org/10.21478/family.21.3.200909.003>
- [25]H.S. Suh, "Effects of fathering attitude on self-esteem, interpersonal skills and resilience of children close to adulthood." PhD Thesis, Graduate School of Seoul Venture University. Seoul, 2014.
- [26]J.S. Cheong, H.S. Jeon, "The Effects of Mother's Psychological Control and Father's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Depression", *Family and Family Therapy*, Vol.24, No.4, pp. 505 -527, 2016. <https://doi.org/10.21479/kaft.2016.24.4.505>
- [27]J.Y. Chae, "The Influences of Fathers' Parenting Behavior, Communication with Fathers, and the Self-Concept of Middle School Students on their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 31, Issue 1, pp. 39-48, 2013. <https://doi.org/10.7466/JKHMA.2013.31.1.039>